

우리가 추구하는 건축의 미래상

The Future Vision of Our Architecture

원정수 / 인하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Won Chung-Soo

머리말

김수근씨와 함께 유럽건축기행중 파리의 뱅 피두센터 앞에 다다르자 문득 나에게 “미스터 원? 이것(뱅피두센터)을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었다. “불란서의 시민혁명 때 일어났던 폭동처럼, 보이는 건축역사조류의 기폭제처럼 느끼는데요!” 그리고 나서 영국과 불란서의 근대역사를 비교하는 얘기가 이어졌다.

영국의 근대화 역사는 무혈(無血)혁명으로 군주제도(君主制度)와 함께 의회정치로서 민주사회로 발전되었고, 불란서는 루이왕을 처형한 과격한 유혈(流血)혁명으로 민주 시민 정치 역사를 이룩한 과정을 건축역사에 비유해보면서, 영국의 근대건축은 기존과 공존하면서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불란서는 기존을 거부하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건축을 보여주는 듯한 양상의 하나로 “뱅피두센터”를 바라보았다. 따라서 한국건축의 근대화 과정은 과연 어떤 것이었으며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연상케 했다.

나는 외국의 새로운 건축물 앞에서 새로운 충격적 감동을 느낄 때이거나 직접 설계를 생각하면서 건축물이 건설 실현되는 과정에서 부닥치는 사회적 몰이해와 부정적인 장애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정력의 소모가 지나치게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건축역사 특성을 반드시 밝혀보아야겠다는 의욕이 솟구치는 역작용이 일어났다.

왜? 오늘의 건축적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야만 되는 것일까? 설계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왜? 주제에 벗어난 문제에 집착하게 되었을까? 이러한 의문은 건축의 미학적 철학으로 고찰 또는 비평하는 논평이나 무한한 개발축진으로 발전하고 있는 건축의 첨단 전문기술 근거에 의한 기술 평가로 밝혀본다 해도 한국적 건축문제의 정체(正體)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 미묘한 느낌이다.

독류(濁流)였던 한국사회의 격변(激變)

20세기는 1900년에서 1999년까지의 100년으로 필자가 65년 동안 20세기의 생활을 경험하고 약 반세

기동안 건축을 체험하면서 20세기에 벌어졌던 한국건축의 역사적 흐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급변하는 탁류의 소용돌이가 격류하는 세월이었다고 고백한다.

필자가 체험한 사회적 격변이란 나라 잃은 한반도 땅에서 일본을 보았고, 세계 2차 대전과 일본의 패전을 보면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민주와 공산주의이념으로 조국이 분단되고 미국과 소련의 영향을 받았고, 남북전쟁으로 가까운 친척과 친구가 희생되는 전쟁지옥의 고통을 이겨내고 초토화된 국토를 다시 건설하는 역사 원년이 시작되면서 필자도 미미한 인력의 하나로 건축계에 뛰어들었고 4.19 민주항쟁을 치르면서 5.16 군사쿠데타로 일어나는 사회변혁과 더불어 건설정책이 과감하게 축진이 되자 국제사회까지 교류가 확대되어 중동 진출의 건설 붐이 일어나며 건축계에도 지각변동이 크게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을 체험했다.

나라를 잃었고, 큰 전쟁을 두 번을 겪었고, 정변(政變)을 여러 번 치르면서 견디기 어려운 쓰라린 고통이라는 오늘의 IMF를 이미 수없이 맛보았다. 다시 말해서 가난과 굶주림의 역사, 전쟁으로 생명을 빼앗기고 정변이 바뀔 때마다 사상의 가치관이 뒤집히기 일수였던 혼란 가운데서도 선진국의 독점물이었던 올림픽을 치르고, 외화 만불 소득이 되자 땀 흘린 한푼이 건축이 붓물처럼 터지듯이 대형화, 고층화, 초호화, 최첨단 등등의 고난도의 설계기회가 열렸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건축계에 특수경기까지 밀어닥치자 해외건축가마저 뛰어들어 높은 가치의 큰 열매를 가로채 듯 설계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한국사회에 날벼락이 떨어지며 먹구름과 천둥 번개치는 IMF가 닥친 오늘에 이르렀다.

유럽과 한국의 모더니즘

국제건축문화의 흐름에서 20세기가 열리면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모더니즘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모더니즘의 진원(震源)은 과학과 공업이 농경사회를 압도하면서 일어난 산업혁명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인류의 생존권을 마음대로 좌우하게 된 특권을 장악한 선진국이라고 부르고 있다.

공업과 산업의 힘으로 국력을 경쟁하던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된 국제사회는 급기야 소련의 산업 경쟁력이 침체 몰락되면서 새로운 경쟁력의 주도력이 되는 첨단 정보산업을 장악한 미국이 독주하는 시대가 열리고 이와 상대적인 국제관계는 일본과 유럽 그리고 후진성의 농경사회국가인 한국, 중국, 아시아 국가들이 산업사회체제로 바꾸어 뒤쫓는 양상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는 급변하고 있으며, 건축문화 역시 이에 종속된 시대조류의 호흡과 박동(拍動)에 따르고 있다.

유럽의 20세기 산업사회가 탄생하게 되는 과정은 농경사회를 지배했던 귀족사회가 몰락하고 민주사회가 정착되기까지 2세기라는 긴 세월동안 많은 피와 땀을 소모하면서 이루어진 그들이 만들어낸 역사적 과정이었다. 그래서 모더니즘은 공업, 양산, 조립. 이를 위한 효율추구의 건축적도의 모듈화로부터 단순미의 추상화(抽象化)를 이루면서 이를 아름다움으로 느낄 수 있는 감성(感性)의 서구인이 되어졌다. 그들은 자유인이며, 인권을 행사하는 평등한 인격의 시민이 되고, 그들은 생활의 호흡으로 빛어지는 절실한 건축을 만들었으며, 이를 모더니즘의 건축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우리는 논밭에서 농사를 생업으로 하며 보릿고개 가난을 숙명으로 삼으면서 몇 천년의 세월동안 가난을 초월한 채 인간의 가치관과 인생관의 깊은 철학에 마음을 의지하는 인격, 인간으로 지탱할 수 있는 환경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갑자기 불어닥친 서구의 바람은 피할 수 없는 돌풍이며, 지금도 우리에게 거세게 불고 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농경사회를 탈피하여 산업사회의 시민의식으로 탈바꿈되어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첨단, 정보사회로 진입하는 21세기의 세계까지 손을 벌친 채 한국인의 몸과 마음과 거동은 원시, 농경, 산업, 정보시대가 혼재된 사회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한국적 상황을 만들고 있다.

서구의 건축이 우리를 개화시킨 건축이라고 하며, 해방후 그리고 6.25 동란으로 잿더미가 된 황량한 금수강산을 재건하는데 당시의 한국적 상황에서는 모더니즘 건축의 등장이 마치 전염병을 몰아내는 신비의 살충제 D.D.T처럼 괴력을 발휘하였던 것처럼 잘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한국에 전염된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황량하고 복잡한 환경의 한국적 현대 도시상을 남겨놓은 부정적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적 건축문화의 싹

건축문화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는 사회적 시대 배경을 앞서 밝힌 바는 서구에서 발달된 20세기 전반기의 모더니즘은 그들의 역사적 진화과정에서 자생된 문화조류인데 반해서 한국의 20세기에서 일어난 격변을 헤쳐나가는 과정은 서구에서 일어난 그들의 역사에서 전수받아 한국의 시대적 격변을 치유하려는 양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국이 광복되자 6.25 전쟁으로 초토화된 상황은 건축의 문화를 의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Less is more"의 명언을 남긴 미국의 모더니즘과 비교하면 빈곤과 미래의 희망을 포기한 생존의 본능에서 건축과 건설을 일으켜야 하는 당시의 한국적 상황은 최소의 투자가 아닌 붕괴를 면하는 축조술에서 집을 만들어야하는 분위기에서 단순하고 간결한 서구 모더니즘 건축에 관한 정보는 단지 그림의 떡으로 읽혀지고 모방하고 있었다고 회상된다. 이때 골부제 건축이 묻어진 채 금의환향하는 김중업씨와 일본의 단계신화(丹下神話) 열풍을 몰고 온 듯하게 금의환향한 김수근씨의 등장은 한국적 근대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시대적 드라마였다고 본다. 당시 생존경쟁의 원시본능에서 빛어지는 듯한 건축적 상황에서 부여박물관의 왜색시비(倭色是非)가 발단되면서, 건축작품 속에서 작가의 사상을 밝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가 생명의 분신임을 깨우쳐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격렬하게 앞장서서 왜색임을 증명, 증언하던 김중업씨의 건축에도 골부제풍에서 한국전통의 재조명, 발굴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콘크리트로 빛어지는 기둥과 지붕의 곡선이 부각되기 시작하고 김수근씨는 검은 전돌과 벽돌에 몰두하면서 한국전통문제 그리고 공간의 의미를 새기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현대 건축계는 시대적 사명과 역사적 의미를 새겨보는 자각의 계기가 되었다고 회상된다.

1967년 건축사법이 발효되는 산고(産苦)는 컷지만 신세대의 건축가를 양산하는 계기를 만들고 이들의 건축창작 열기가 번지기 시작되면서 건축계의 세대별 단층이 형성되기 시작한 계기가 됐다. 더구나 건설기업으로 중동진출이 시작되자 건축계의 분위기와 판도가 바뀌는 계기가 되면서 건축가의 개인적 사색으로 작품 창작생활에 몰두하던 상황에서 대규모 단위의 건축, 도시 규모의 설계를 소화해야 할 소위 협동체의 대규모 인력을 관리해야 하는 건축창작설계의 경쟁시대가 도래했고, 그 인적구성도 한국의 국적으로 제한할 수 없게 되고 아울러 건축가의 사상적 갈등이었던 한국적 전통계승 또는 한국적 고민에서 표출된 왜색시비, 골부제 신앙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게 되는 듯 하면서 한국적 탈 모더니즘의 양상이 된다. 한편 외국건축이 직수입되는 현실에서 외국 열풍으로 묻어 들어오는 기회를 그들은 실험 건축장으로 즐기고, 신세대의 랩 음악 열풍 같은 새로운 건축이 벌어지면서 20세기가 마감되거나 21세기 미래가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미래의 전망

건축경력 반세기를 치르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 가운데 한국 건축문화의 변천 양상과 한국정치풍토의 변천 양상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미래를 바라본다.

조국이 광복되자 농경문화의 어진 백성들은

선진국에서 민주주의 사상으로 선각된 정치인을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대통령으로 모셨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는 독재자로 몰락되고 한국에서 자생된 무력지도자로 바뀌었다. 이들도 고통과 항락의 새로운 경험을 맛보게 하고 비로소 우리의 정치풍토에서 성숙된 지도자가 정치를 펼치는 20세기의 흐름에서 농경문화의 어진 백성들은 어느덧 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진 서구사회의 민주시민과 같은 공동체사회의 한국인이 되었는가? 그리고 건축인인가?

모더니즘 열풍과 외국건축의 선진문화를 전수하듯 한 건축가의 활동이 있었는가 하면, 그리고 한국적 토양에서 일어난 사상적 갈등 속에서 건축을 깨닫는 세대, 그리고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위주의 시대조류인 급류타기에서 성장한 건축인들과의 세대교체... 여기에 대응하여 건축문화 회생을 부르짖는 새로운 건축세대의 움직임은 통해서 점차로 밝은 전망을 예상하는 새로운 세대가 이어가고 있는 건축계가 성장 발전하고 있는 것이 한국적 20세기의 흐름이라고 보여진다.

건축은 주체인 인간과 객체인 환경을 서로 묶어내는 산물이다. 한국인이 우리 국토에서 생존하기 위한 환경을 빚어낸 결과가 오늘 우리의 건축일 것이다.

주체와 객체의 본질을 가장 깊이 터득할 수 있는 것은 문헌으로 터득된 정보와 이론보다 그들을 대하면서 쓰러린 후회를 깊이 터득한 건축적 체험의 축적이며, 이를 다음 기회는 반드시 실패의 되풀이 없이 반영하며 희망을 밝히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흔히 20세기는 모더니즘에서 시작되어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등으로 암기하며 다윈론, 은유법, 독창적 개성을 주장하며 시시각각으로 각양각색으로 급변하는 건축으로 과열경쟁은 주체와 객체의 주제가 제외된 한국적 세기말 현상의 건축양상이 보인다.

아름답다던 금수강산 자연경관 환경은 대형 고층건물로 전국이 매몰되고 산수화 한 폭의 그림같은 한국 고유의 땅에 어지럽게 뿌려놓은 해체성 건축재료의 누적으로 국토에서 신음하는 소리로 듣게 된다.

미래는 첨단이라는 능력을 동원하여 푸른 자연으로 되돌려 놓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곧 건축이며, 도시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주인공인 인간의 이상적 생존권이 안주되는 건축을 창조하는 목표가 우리의 미래상일 것이다.

20세기 한국건축의 조명과 전망

우리의 모더니티 - 20세기에 남겨논 문제들

The Modernity of Our Own-The Unsolved Problems of the Twentieth Century

조성룡/ 조성룡도시건축
by Jo Sung-Ryong

20세기에 들어서서 조선조 600년의 왕조시대가 끝나고 서구열강과 일본 중국의 패권주의의 각축장으로 변한 대한제국 말기의 상황과 일제 강점기, 해방후의 이데올로기 대립과 분단, 그리고 전쟁으로 이어지는 동안의 변화는 타자에 의한 강제적 아니면 타의적인 것이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근대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근대화, 특히 국토개발의 부문에서 살핀다면 군사정권 수립 후에 일어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근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물론 근대화 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며, 우리의 20세기처럼 타의에 의하여 서구화 근대화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 정확한 평가는 역사가자들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전쟁으로 인하여 황폐하게 된 국토를 복구하고 60년대 월남전에 참전하면서 해외 건설에 진출하고, 경부 고속도로를 완성하면서 70년대에는 공업 단지건설, 중동 건설

특수(特需) 붐이 일어났다. 이어서 서울 강남지역의 초 대규모 개발과 그 영향으로 온 국토는 건설현장이 되다시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한국건축의 20세기를 생각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의 변화를 겪었던 지난 30여년 동안의 변화 속에서 생겨난 여러 현상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젯더미에서 일궈낸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무적인 찬사가 따르는 경제성장은 우리의 어려웠던 시절과 비교해보면 사실 '꿈' 같은 일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먼 나라 얘기 같던 올림픽도 치르고 세계박람회도 열었다. 선진시민이 되는 일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오는 듯 하였다. 그래서 웬만한 갈등은 접어두고 오직 앞 길만을 쳐다보며 매진하였다.

계량적인 개념으로 볼 때 이 기간의 발전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주택보급률도 높아지고 개인의 주거공간이 늘었음을 뿐 아니라 도로와 지하철 등 교통기관이 확장되었으며, 사회의 모든 분야가 그렇듯 도시기능이 확대되고 개발